농촌마을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방법론 고찰
-청도군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설정을 사례로-
Perspectives of methodology for Cultural Contents of Dangsang Forest
in Rural Village
-Case of establishment of 'Conservation Area of Agricultural Landscape Ecology'
at Sinwon-ri, Cheongdo-gun-

최재웅*, 김동엽**, 이상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Jai-Ung Choi(juchoi0530@korea.kr)*, Dong Yeob Kim(ydkim@skku.ac.kr)**
Sang-Young Rhee(syrhee84@korea.kr)*

요약

수백 년 전부터 농촌마을 주민들이 조성해 온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이며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지역성과 세계성을 같이 갖추어야 하며, 한국 고유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유산은 진정성 유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당산숲이 방치되거나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 신원리의 4개 자연마을은 당산숲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이 연구는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비보숲과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 하천을 포함하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은 한국 농촌이 갖고 있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국가문화자산인 당산숲의 위상을 제고하고 농촌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글로벌문화콘텐츠| 전통마을숲 | 당산숲 | 문화경관 |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

Abstract

Dangsang forests are traditional village fores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y local residents. They represent unique cultural landscape of Korea with a history of more than several hundred years. It is necessary for a cultural contents to have locality and globality so as to represent Korea. Cultural heritage can retain their value when they are fully sustained their authenticity and management scheme. Although many Dangsang forests have been on the verge of disappearance, the four villages in Sinwon-ri have retained Dangsang forests with Dangsang ritual. In this study, a 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 of agricultural landscape ecology' including Dangsang forests, Bibo forests, rice paddy field, and stream in Sinwon-ri was suggested. This 'Conservation area of agricultural landscape ecology' can be developed to unique global cultural content of rural Korea, and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value of the Dangsang forest's, and revitalization of rural villages.

■ **keyword** : |Global Cultural Contents | Traditional Village Forest | Dangsang Forest | Cultural Landscape | Conservation Area of Agricultural Landscape Ecology |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352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3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5월 09일

수정일자 : 2014년 05월 08일

교신저자 : 최재웅, e-mail : juchoi0530@korea.kr

I. 서론

수백 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수 백년 간 대(代)를 이어 보호, 관리해 온 당산숲은 당산제(堂山祭)를 통해 실생활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다[1]. 이러한 당산숲은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 사회혼란기에 크게 훼손되고, 그 후에도 방치, 훼손되어 왔는데, 근래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전통마을숲을 '농촌경관의 핵심경관'으로 규정하였고(2005), 김학범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전통마을숲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유산으로서 잘 가꾸어져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산숲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단히 부족하며 훼손, 소실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당산숲이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방치, 훼손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있는 제주도 성산리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마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마을 당숲이 소실된 사례가 있다.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유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베니스헌장(1964) 등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진정성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향유권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3].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경상북도 청도군은 많은 마을에서 당산제가 폐지되었으나, 청도군 신원리의 4개 자연마을(절골, 본동, 통점, 삼계)은 모두 당산제를 지내며 당산숲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자국의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당산숲과 같은 농촌의 생태적 전통문화자산을 문화콘텐츠화하여 보전,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동농업정책 중 '생태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농가가 그들 농장 주변의 나무, 생울타리, 수변림(水邊林) 등을 보전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마을 뒷산인 里山을 문화콘텐츠화하여 里山의 아름다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아름답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원적자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농촌자원관리법'을 추진하고 있으나(2013), 이러한 논의의 대상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농촌자원 즉, 한국 농촌만이 갖고 있는 경관생태 전통자원인 당산숲의 실체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해 당산숲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로컬리티(지역성)와 글로벌리티(세계성)를 같이 갖추어야 하며, 한국 고유의 글로벌문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4]. 당산숲은 한국 농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산숲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비모숲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 하천을 엮어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동향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의 원형(original form+archetype)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즉, 원형성, 잠재성 및 활용성을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다. 콘텐츠는 디지털 기술 외에 아날로그 콘텐츠도 가능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기획, 포장하고 상품화시킨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원소스 멀티유스(OSMU: One Source Multi-Use)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는 원천소스가 중요하다. 소재를 개발하여 원천소스로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5]에서 재인용).

근래에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중 63건이 자연성지에 해당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문화성, 경관 및 미적 가치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6]. 특정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가장 큰 가치를 핵심가치(core value)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 상징화시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7], 당(堂)과 연계시킨 제주도 저지오름 대안 탐방로 모색을 사례로 한 문화콘텐츠로서의 당산숲 인식 증진 방법론 고찰[8], 명승 문화재의 경관자원 발굴을 위한 조망지점 분석[9],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 분류체계 연구[10]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사례

당산숲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의 추진 사례가 있다[표 1].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SNS(sacred natural sites) 즉, 자연성지(自然聖地) 개념을 도입하고, IUCN(국제자연보전연맹)과 함께 6원칙·44지침으로 이루어진 '자연성지 관리지침(2008)'을 작성하였다. 자연성지는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해상의 구역으로, 전세계의 많은 자연성지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 당산숲은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문화경관 보호를 담보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한국의 자연성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마을 뒷산에 해당하는 '里山(satoyama)'에 대해 일본전통문화·생물다양성 보전창고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홍보해 온 결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4차회의(2010.5.10~21)에서 「PARIS DECLARATION ON THE SATOYAMA INITIATIVE」(사토야마 이니셔티브에 대한 파리 선언, 2010)라는 안건을 채택시킴으로써, 里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관광자원화하고 있다[11]. 한국의 당산숲은 일본의 里山 보다 높은 가치를 갖

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2002),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제도, 환경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설정[12] 등도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생태보호구역(ecological focus area)' 설정(2013) 및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자원 관리지역'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표 5].

표 1.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국내의 추진 사례

추진체	문화콘텐츠화 명칭	적용대상 및 내용
유네스코(UNESCO)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靈的) 중요성을 갖는 육상, 해상의 구역
유엔환경계획(UNEP)	Paris Declaration on the Satoyama Initiative(2010)	일본의 里山(satoyama)에 대해 일본 전통문화·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의 모범으로서 선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GIAHS, 2002)	지역주민과 그 주변환경의 관계성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용시스템 및 경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명승(국가지정 문화재)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제309호, 2008), '대관령 옛길'(명승 제74호, 2010) 등
환경부	'생태경관 보전지역' 설정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

3. 당산숲 관련 연구동향

그동안 전통마을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13-16]. 전통마을숲 연구는 비보숲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비보수(裨補藪)이다. 숲은 조산(造山)이 지나는 상징성, 신앙성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홍수 방지, 휴양소 역할을 겸하는 다기능적인 비보 수단이다[17]. 당산숲에 대한 연구는 '스토리가 있는 우리마을 당산숲', '당산숲 탐방길' 등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수행되었다[18][19]. 우리나라 농어촌의 전통마을숲은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륙의 농촌 전통마을숲은 마을 내에 당산숲이 하나만 있거나, 당산숲1+비보숲(당산숲2)

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첫 번째는 숲이 한 개로써 하천 변에 당산숲이 하나만 있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숲이 두 개로써 하나는 하천변의 당산숲이고, 다른 하나는 하천 변에 있는 띠형의 비보숲 또는 두 번째 당산숲이 있는 형태이다. 해안가의 경우도 나타나는 양상은 내륙과 비슷하다. 전통마을숲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숲 이외에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숲은 비보숲이다[20]. 당산숲은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인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 주로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21]. 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비보숲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가 보고되었고[22],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09호인 '부산 구포동 팽나무'를 '부산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을 변경, 지정하였다[23]. 국립산림과학원(2012)에서는 '한국정원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마을의 정원, 한국 전통마을숲의 유형'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통마을숲을 비보숲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24].

현재, 규모가 큰 일부 당산숲은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당산숲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 규모의 당산숲을 대상으로 농경지와 연계된 관리체계를 고찰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는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로서,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주민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미, 가치가 인식되지 않고 있는 곳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013년 초부터 우선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마을을 발굴하고자 하였는데, 경북 청도군에 대한 당산숲 현황조사가 많은 마을에서 당산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문면 신원리 4개 마을은 모두 당산제를 지내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도

갖추어져 있어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제일 남쪽에 있고, 신원리는 청도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운문재를 넘으면 바로 동해안 지역인 울산광역시 연양읍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그림 1].

그림 1. 조사대상지인 신원리 4개 마을 위치도

신원리는 운문댐 수몰수변구역으로서, 바로 아랫마을인 오진리 등 7개 리는 1996년 준공된 운문댐으로 인해 수몰되었다. 큰 산들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간마을인 신원리는 절골, 본동, 통점, 삼계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절골 바로 위에는 천년사찰 운문사(雲門寺)가 있고, 운문사 뒤에 있는 운문산(雲門山)은 2010년, 환경부에 의해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1].

2. 연구방법

문화유산,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바로 보존을 전제로 한 가치(기능, 능력)의 확대과정이며, 따라서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치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은 가치의 재인식에서 시작하여 가치의 전환, 가치의 재창조, 가치의 극대화, 가치의 융합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25][26]. 이 연구는 당산숲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위상·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그 수단으로서 ‘당산숲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부여’라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해 제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는 국내외 노력, 추진 사례를 고찰하고[11][27-29], 고찰 결과를 이 연구 조사대상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2013년 7월초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현장답사시에는 신원리 이장(김종목) 등 주민면담을 통해 4개 마을 현황과 당산숲, 당산제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2013년 8월 12~15일에 당산숲의 물리적 실태조사에서는 4개 마을의 당산숲, 비보숲과 농경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마을현황, 당산숲, 비보숲의 위치, 형상, 규모, 임상, 당산나무 수종, 관리현황 등이었다. 당산숲의 위치, 크기 및 수목의 흉고직경은 실측하고 농경지 등의 마을공간 구성요소와 함께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마을 당산제는 2014년 정월 14~15일(양력 2월 13~14일)에 참관하였다. 농촌경관인 당산숲에 대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부여를 위해 특히, EU의 공동농업정책 중 ‘생태보호구역’ 설정의 내용을 국내에 응용하고자 하였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자원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IV. 청도군 신원리 당산숲 현황

1. 마을 현황

신원리는 절골의 가구 수가 50호, 본동은 가장 많은 115호, 통점 60호, 삼계 65호 등 총 290호로 이루어져 있다[표 2]. 신원리 4개 자연마을은 큰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마을로서 농지가 적으며, 특히 통점 주민들은 산림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펜션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농업이 주업인 농촌지역에서도 당산제가 끊긴 곳이 많은데, 농사 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활동이 주된 경제활동인 마을에서 당산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른 농촌마을 보다 젊은 층이 많은데 이들이 당산제를 지낸다는 것은, 굳이 농사를 짓는 농촌지역이 아니

더라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당산제와 당산숲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점의 경우, 당산제에서 제관이 소지를 올리면서 비는 내용은, 농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 마을의 안녕, 개개 펜션 영업의 번창, 주민의 건강 축원 등이다.

표 2. 신원리 자연마을 현황 (청도군청, 2013년)

법정리	자연마을	가구 수	특징
신원리	절골	50호	산간마을로서 농지가 적고, 펜션 운영 등 상업활동을 하는 주민이 많으나, 당산제가 잘 유지되고 있음
	본동	115호	
	통점	60호	
	삼계	65호	

2. 당산숲의 물리적 현황

신원리 당산숲의 물리적 현황을 보면, 운문사 바로 밑에 있는 절골에는 작은 당산숲(낙엽활엽수림)이 산기슭과 가까운 쪽에 있고, 사찰 농경지인 논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연제방에 조성한 비보숲(낙엽활엽수림)이 있다. 운문사 입구에는 사찰을 외부 시야로부터 차폐하기 위한 사찰 비보숲(소나무림)이 있고, 내부에 사찰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호)가 있다. 본동은 마을 입구 쪽에 작은 당산숲(낙엽활엽수림)이 있고, 마을과 농경지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보숲(낙엽활엽수림)이 하천변 제방에 길게 조성되어 있다. 통점은 마을도로변에서 60여 m 올라간 산기슭에 소나무가 우점하는 작은 당산숲이 있다. 삼계마을 당산숲은 하천변에 소나무와 굴참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숲 안에 당집이 있다[표 3].

표 3. 신원리 당산숲·비보숲의 물리적 현황

마을	유형	규모 : 길이×폭(m)
절골	당산숲+비보숲	당산숲: 23×14 비보숲: 950×5
	사찰 비보숲 사찰 당산나무	비보숲: 322×82(아래), 570×80(위) 1그루(처진소나무)
본동	당산숲+비보숲	당산숲: 31×16 비보숲: 650×11
통점	당산숲	35×30
삼계	당산숲	55×43(소나무림), 130×43(굴참나무림)

a: 당산숲 · 비보숲 현황도

b: 당산숲 전경

c: 사찰 논과 비보숲 원경

d: 당산나무

e: 사찰 비보숲

f: 처진소나무

그림 2. 절골마을 당산숲 · 비보숲 현황

2.1 절골

절골의 당산숲은 23×14m의 작은 규모에 금줄이 걸린

당산나무(말채나무, 흉고직경 70cm)와 느티나무 세 그루(평균흉고직경 61cm)가 지면에서 약 2.5m 높이의 작은 동산 위에 있다. 현재는 당산숲과 산기슭이 분리되어 있는데, 당산숲이 주로 마을 위 산기슭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볼 때, 당산숲과 산기슭은 이어져 있었으나 마을 길을 내면서 절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보숲은 낙엽활엽수림으로서 사찰 농경지(논)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논이 있는 하천가 자연제방 경사면에 950m 거리에 걸쳐 한 줄로 열식되어 있다. 비보숲 중간지점에서 40m 길이의 구간 안에 있는 나무를 실측하였는데, 느티나무 세 그루(평균흉고직경 95cm)와 밀동이 붙어 있는 팽나무 한 그루(두 갈래의 밀동은 각각 73, 75cm)등 네 그루가 있었다. 제방 경사면의 길이는 약 5m이고 약 50×60cm 크기의 자연석이 전체 경사면을 덮고 있다. 비보숲 실태조사시, 이곳의 환경감시인인 산감(山監)으로서, 사찰 농경지를 관리한다는 주민(정민철)을 면담하였는데, “사찰 농경지는 사찰 소유의 땅이고, 마을주민이 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의 7할은 경작자가 갖고 나머지 3할은 절에 갖다 준다”고 한다.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 21년(560년)에 한 신승에 의해 창건된 유서깊은 사찰로서, 사찰 소유 땅과 관련한 기록에 의하면 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 많은 토지를 운문사에 하사하였다[30]. 운문사 입구에 있는 사찰 비보숲은[그림 2a][그림 2c][그림 2e] 소나무림으로서 아래 쪽은 322m 길이에 폭 82m(시작 부분 80, 중간 부분 135, 끝 부분 30m의 평균)이다. 중간 지점의 10×10m 방형구 안에 있는 소나무는 8주(평균흉고직경 50cm)인데, 이곳 대부분의 소나무는 일제강점기 말에 비행기 연료용 송진을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를 입어 줄기에 ‘V자형’ 상처가 깊게 남아 있다. 위쪽 소나무림은 570m 길이에 폭 80m(복대암 오르는 길이 있는 부분에서 실측한 것으로서, 사찰 관통 도로의 하천쪽 숲 폭 40, 산기슭쪽 숲 폭 40m의 합) 규모이다. 위, 아래 소나무림 사이의 약 270m 길이 구간에는 소나무림이 없고, 느티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다. 운문사 대웅전 앞에 있는 사찰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에서는, 매년 삼월삼짇날에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이 처진소나무에 ‘막걸리 공양’을 하며 보호, 관리하고 있다[31]. 이것은 ‘부안 내소사 석포리

a: 당산·비보숲 현황도

b: 당산 전경

c: 당산나무

d: 비보숲 원경

e: 비보숲 잔해

그림 3. 본동마을 당산·비보숲 현황

당산제'에서 내소사 스님과 석포리 입암마을 주민들이 정월 14일에 먼저 내소사 경내에 있는 '할머니 당산나무'(느티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낸 후, 마을로 내려와 '할아버지 당산나무'(느티나무)에서도 당산제를 지내는 경우와 비슷한 사례이다[32].

2.2 본동

본동 당산숲은 31×16m의 작은 규모에 당산나무인 느티나무(흉고직경 85cm)와 밑둥에서 두 갈래(흉고직경 70, 75cm)로 갈라져 있는 느티나무 1주로 되어 있고, 하천 옆

a: 당산 현황도

b: 당산 원경

c: 당산 내부

그림 4. 통점마을 당산 현황

도로와 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하류쪽에 있는 비보숲은 경작지가 있는 쪽 하천제방 경사면에 650×11m 규모로 1열로 열식되어 있다. 상류인 '방지초교 문명분교' 앞 하천 양편에는 약 100여 m에 걸쳐 느티나무 거목들이 줄지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원래 하류쪽과 하나로 이어져 있던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며 마을집과 가까운 비보숲 나무들이 훼손되면서 남은 비보숲 잔해로 추론된다[그림 3a]. 하류쪽 끝 28m 구간에는 느티나무 4주(평균흉고직경 52cm), 팽나무 1주(흉고직경 90cm) 등 5주가 있다.

2.3 통점

마을도로변 위 산기슭에 있는 통점 당산숲은 약 30×30m 규모에 금줄이 걸려 있는 당산나무 등 15주(평균흉고직경 51cm)의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주변은 흉고직경 10cm 내외의 어린 참나무림이다. 당산숲

a: 당산숲 현황도

b: 당산숲 앞

c: 당집

그림 5. 삼계마을 당산숲 현황

은 작년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 운문댐 수물수변구역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제단석 2개 설치 및 당산나무 앞을 약간 절토하고 당산제 지널 나무평상을 만들었는데[그림 6e][그림 6f], 당산숲은 임의로 형질변경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다[19].

2.4 삼계

삼계마을 당산숲은 삼계1교 바로 위 신원천(新院川) 하천변에 55×43m 규모의 소나무림과 그 위에 붙어있는 130×43m(시작 부분 33, 중간의 사이길 부분 폭 52m의

평균) 규모의 굴참나무림이 합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5a]. 소나무림의 소나무는 21주(평균흉고직경 45cm)이고 도로변에 당집(성황당 현판)이 있다. 당집 옆에 설치된 ‘삼계리 서낭당 유래’ 안내판에는 ‘삼계리 서낭당 재건위원회 일동’의 이름으로 “삼계리 부락은 자연재해와 역사적 변란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을 세워 오랜 세월 동안 부락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 1970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향인 홍영기 지도자는 초라한 서낭당의 모습을 일신시켜 이 자리에 옮겨 세웠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서낭당이 도괴 상태에 이르러 삼계리 부락민들은 서낭당재건위원회를 구성 동참자의 헌성금을 모아 2007년 4월 6일 이 자리에 정초 입주 상당하고 삼계리 서낭당을 재건하여 후세에 길이 남긴다”라고 쓰여 있다. 굴참나무림의 10×10m 방형구 안에 있는 굴참나무는 5주(평균흉고직경 39cm)이다.

3. 당산숲문화 현황

당산숲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일 것이다. 절골 당산제는 제주 내외가 차량으로 제물을 운반한 후 정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거행되었고, 마을청년회 총무(서태만)가 동석하였다. 통점은 제주(안후영) 내외와 부녀자들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 후, 당산에 올라가 정월 14일 밤 10시에, 먼저 ‘당산할배’라고 부르는 당산나무에서 제를 올린 후, 당산숲 위쪽 경계에 있는 제단석에서도 산신제를 지낸다. 삼계는 정월 15일 아침 7시에 당집에서 당산제가 거행되었고, 본동은 인근 사찰에서 대행하는데, 시간상 당산제를 지낸 흔적 만을 확인하였다[그림 6c]. 통점과 삼계는 당산제를 지낸 후, 정월 15일 아침 8시에 지신밟기 행사를 한다. 통점은 아침 7시 반에 풍물패가 마을회관에 집결하고, 먼저 당산숲에 올라가 풍물을 치며 예를 올린 후 [그림 6f], 지신밟기를 해 달라고 미리 신청한 집(27호)을 찾아가 풍물을 치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20여 명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풍물패의 절반 정도는 부녀자들이다[그림 6g].

표 4. 신원리 마을 당산제 현황

자연마을	날짜(음력), 시간	비고
절골	정월 14일, 저녁 12시	제물을 차량으로 운반
본동	정월 14일, 저녁 12시	사찰(운학사)에서 대행
통점	정월 14일, 저녁 10시 및 10월 14일, 저녁 10시	정월 14일 당산제 후 15일 아침 8시에 지신밟기
삼계	정월 15일, 아침 7시	당산제 후 지신밟기

그림 6.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제문화(당산제)

V. 신원리 당산제의 문화콘텐츠화 고찰

1. 당산제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전통문화유산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을 갖추어야 하며, 사람들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베니스 헌장, 1964). 진정성은 제철, 기법 등에서 원래 유산이 보유한 변하지 않는 가치의 정도를 말하며 ‘진짜’, ‘진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산제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활용되어야 하나, 한국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간과,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일부 당산제는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문화 자산인 수많은 당산제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와 그에 따른 관리체계 미비로 훼손되거나 오·남용 되어 존재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사례로,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인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당산제이지만 마을놀이터로 오용되고 있다[33].

당산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육지에서의 ‘당산제’가 있는 공간을 제주도에서는 보통 ‘당’(堂)으로 통용하고 있는데[34], 육지와 달리 ‘당’은 제주 부녀자들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실생활에 살아있는 문화경관’이고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친숙한 곳이다. 이들 당의 중요성을 인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몇 개 되지 않는지만, 송당리의 ‘송당본향당’(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9-1호) 등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그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육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산제가 한국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산제의 실상과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 수준이 제주도와 같은 정도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마을의 해녀, 어업 종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문화콘텐츠로 관심을 받으며 ‘영등축제’로 개최되고 있다[35].

한편 제주도 성산리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산일출봉이 있는 유산지구 마을이지만[36], 마을 속 청 ‘통밭알’이라는 곳에 있는 ‘돈지일뒤향당’은 문화재 지정 등의 보호장치 없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유자에 의해 당숲 자체가 멸실되었다[그림 7]. 이제 당산제의 보전, 관리의 마을주민의 힘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한 제도적 관리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림 7. 제주도 성산리 당숲 멸실 사례

2.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앞의 연구방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화유산,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법론에 따라, [그림 8]과 같은 논리로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그림 8. 문화유산(당산숲)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체계

2.1 신원리 당산숲 가치의 재인식

문화유산으로서 당산숲의 가치를 지닌 신원리 당산숲은 유럽연합의 '생태보호구역(ecological focus area)' 설정과 유사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자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인식될 것이다[표 5]. 즉,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가의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는 자국의 농업경관·농촌경관의 보전이다. 농업경관·농촌경관이 아름답게 보전되어야 국토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들의 전통문화보전, 식량안보 유지, 농촌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차기 공동농업정책(2014~2020) 중 '생태보호구역(ecological focus area)'을 설정(2013)하여, 농가가 그들 농장 주변의 나무, 생울타리, 수변림(水邊林) 등을 보전하여야만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아름답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원적자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2013).

표 5.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고찰

추진체	문화콘텐츠화 명칭	적용대상 및 내용
유럽연합(EU)	생태보호지역(ecological focus area) 설정(2013)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농장주는 연못, 숲지, 수변림, 경관림 등을 보전, 관리하여야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가칭) '농촌자원관리법' 추진(2013)	아름답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원적자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2.2 당산숲 공간을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

이 연구에서 신원리 당산숲에 대한 가치화 과정, 가치의 재창조는, EU의 '생태보호구역',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자원 관리지역'에 선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대상지로서의 당산숲 위상을 논한 것이다. 즉, 신원리 당산숲 공간을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표 8].

EU는 그들 각국의 농업경관·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농장 주변의 hedges(생울타리), trees(수목), fallow land(휴경지), landscape features(특색있는 경관), biotopes(소생물권), buffer strips(수변림, 水邊林) 등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농장주가 이것들을 보전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경관생태자원을 한국에 적용시킨다면, landscape features, trees, biotopes 등은 당산숲에 해당되며, hedges, trees, buffer strips 등은 비보숲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로서, 경관생태적으로 특히 우수한 곳을 농림부 지정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은 4개 마을의 당산숲·비보숲 및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 하천, 마을집을 '농업경관생태 핵심보전구역'으로 하고, 마을 사이의 도로·하천·하천변 농경지를 '농업경관생태 전이보전구역'으로 분류해 설정할 수 있다[표 6][그림 9]. 환경부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 전이보

전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표 6.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설정

명칭	분류	대상 지역	대상 범위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농업경관생태 핵심보전구역	4개 마을	-당산숲 · 비보숲 -농경지, 하천 -마을집
	농업경관생태 전이보전구역	마을 연결축	-마을 사이 도로 -하천 -하천변 농경지

그림 9.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설정 · 관리

또한, EU에서는 fallow land가 '생태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한국에서는 당산숲 · 비보숲과 연결되어 있는 경작지(논, 밭)가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논은 규모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라고 하더라도 '절대보전농지'로 지정해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하면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0,000㎡ 미만인 한계농지는 작물생산성이 낮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등 농지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이런 농지가 소실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경우 당산숲만 가지고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논일지라도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특히, 절골, 본동의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2][그림 3의 현황도 및 사진]. 한편, EU에서는 개별 농가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한국

은 당산숲을 보전, 관리하고 있는 마을 단위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7].

표 7. 농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

분야	항목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내용)	대안 내용
경관 자원	경관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	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 의 무화
	자원관리 지역지정	아름답거나 보전가 치가 있는 지역을 '다원적자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	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로서, 경 관생태적으로 특히 우수한 곳을 농림 부 지정 '농업경 관생태 보전지역' 으로 지정
유산 자원	유형자원	국가 농업유산 지 정, 지방 유산지정 제 명시	중요 당산숲을 국 가 · 지방 농업유산 으로 지정
	무형자원	무형유산의 국가등 록제, 콘텐츠 발굴 육성방안 명시	정월대보름 행사 및 당산제의 문화 콘텐츠화
환경 생태자원	환경보전 기준	농경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성토 안 전기준 설정	'농업경관생태 보 전지역'으로 지정 된 곳의 논은 규모 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일지라도, '절대 보전농지'로 지정
총론	자원관리 프로그램	직불금을 작물에서 환경 · 경관 · 유산 자원 분야로 확대 하는 방안	'농업경관생태 보 전지역'으로 지정 된 마을에 대해 직 불금 지급

2.3 가치의 확대 및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위상 제고

현재 운문사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에서 행하는 '막걸리 공양식'은 사찰 단독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그림 2f]. 이 행사는 마을과 사찰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마을과 사찰이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당산숲의 인식 증진 및 가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당산숲이 중국의 feng-shui forest(풍수림, 風水林), 일본의 satoyama(里山), shinto shrine forest(신사림, 神祠林) 등과 같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당산숲의 특성이 올바르게 알려지고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사회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이 농경지와 엮여져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시민의 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8]. 이러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의 모습은 한국 농촌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경관,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 제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당산숲도 일본의 里山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경관 보전, 농촌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일반 문화유산과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비교

과정	일반 문화유산	신원리 당산숲
보존을 전제로 한 가치의 확대 과정	1) 가치의 발견, 재인식	당산숲 가치의 재인식-작은 규모로 인해 주목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의 잠재적 가치 인식
	2) 가치화 과정, 가치의 재창조	당산숲 가치의 재창조-당산숲과 농경지의 연계 및 4개 마을을 연계하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 관리함으로써 가치 제고
	3) 가치의 극대화·융합	당산숲 가치의 극대화·융합-문화적 원천소스로서의 당산숲 개발과 OSMU로 고부가가치 창출, 신원리 당산숲과 운문사 비보숲, 처진소나무의 문화적 연계

VI. 결론

현재 당산숲이 가진 가치와는 상관없이 보호 받지 못한 채 방치, 훼손되거나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많다. 이 연구는 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에 소재된 작은 규모의 당산숲을 농경지와 연계된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문화콘텐츠화를 시도하였다. 전통 생활문화인 당산제가 유지되고 있는 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비보숲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 하천을 포함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신원리의 당산숲이 농경지를 포함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산숲의 가치와 농촌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의 모습은 한국 농촌마을에서 만 볼 수 있는 문화경관, 글로벌문화

콘텐츠로서, 제도적인 관리를 통해 농촌경관 보전, 농촌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가치화 과정을 통해 신원리 당산숲의 가치를 확립하고 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했으며,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원천소스 논리 개발, 제도적 적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최재웅,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문화재, 제42권, 제1호, pp.188-209, 2009.
- [2] 김학범, 월간문화재사랑: 복합유산, 마을숲, 제52호, 2009.
- [3]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venice_e.htm
- [4] 박치완, “왜 글로벌문화콘텐츠인가?”, 인문콘텐츠, 제20호, pp.9-33, 2011.
- [5] 최연규,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6] 김효정,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성지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492-501, 2012.
- [7] 어정연,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199-209, 2013.
- [8] 최재웅, 김동엽, “문화콘텐츠로서의 당산숲 인식 증진을 위한 방법론 고찰-당(堂)과 연계시킨 제주도 저지오름 대안 탐방로 모색을 사례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924-934, 2013.
- [9] 이원호, 김재웅, “명승 문화재의 경관자원 발굴을 위한 조망지점 분석-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429-439, 2013.
- [10] 김효영, 박진완,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CT) 분류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지, 제13권, 제5호, pp.183-190, 2013.
- [11] UNEP, *PARIS DECLARATION ON THE SATOYAMA INITIATIVE*, UNEP 생물 다양성 협약 14차 회의 보고서, 2010.
- [12]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지침*, 2009.
- [13] 강현경, 방광자, 이승재, 김학범,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논문지, 제22권, 제2호, pp.63-74, 2004.
- [14] 김학범, 장동수, *마을숲-韓國傳統部落의 堂숲과 水口막이-*, 열화당, 1994.
- [15] 주강현, 장정룡, 황현만, *조선땅 마을지킴이*, 열화당, 1993.
- [16] 최재웅, 김동엽,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8권, 제3호, pp.51-64, 2000.
- [17] 최원석, *한국의 전통생태학: 한국의 전통적 경관보완론*, 사이언스북스, 2004.
- [1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토리가 있는 우리 마을 당산숲*,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1.
- [19]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당산숲 탐방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2013.
- [20] 최재웅, 김동엽,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7권, 제1호, pp.35-47, 2009.
- [21] 최재웅, 김동엽,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제4권, 제2호, pp.31-55, 2005.
- [22] 최재웅, 김동엽, “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비보숲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 고찰”, 문화재, 제43권, 제1호, pp.28-55, 2010.
- [2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산 구포동 팽나무 명칭 및 유형 변경*,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내용 및 결과, 2008.
- [24] J. Kwon, “Korean Landscape and MAEULSOO-Ps, the Korean Village Grove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Beauty of the Korean Garden as Korean Cultur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pp.47-54, 2012.
- [25] 김상현, 김나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식정보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711-722, 2011.
- [26] 심승구,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전략연구소, 2006.
- [27]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index_en.htm
- [28]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nara_e.htm
- [29] http://www.unesco.or.kr/heritage/wh/reg_criterion.asp
- [30] http://www.unmunsa.or.kr/home/bbs/oard.php?bo_table=01_01
- [31] <http://blog.naver.com/poetkjk?Redirect=Log&logNo=10029799147>
- [32] <http://www.jbkns.com/news/articlePrint.html?id=xno=68334>
- [33] 최재웅, 김동엽, “부산 '좌수영 성지(左水營 城址)'의 진정성(authenticity) 회복방안 고찰”, 문화재, 제44권, 제1호, pp.138-161, 2011.
- [34] 최재웅, 김동엽, 조록환, 김미희, 안옥선, “당(堂)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해안·중산간마을의 공간 특성 사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01-109, 2012.
- [35] <http://www.jemin.com/news/articlePrint.html?id=xno=328802>
- [36] 강경희,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성산라: 마을의 안녕·풍요·화합을 기원하는 제의*,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저 자 소 개

최 재 웅(Jai-Ung Choi)

정회원

- 198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농학사)
- 200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조경학박사)
- 1993년 8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 문화경관, 농촌 당산숲, 경관생태

김 동 엽(Dong-Yeob Kim)

정회원

- 1992년 5월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Forestry(임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도시녹지, 마을숲, 인공지반녹화

이 상 영(Sang-Young Rhee)

정회원

- 1991년 4월 : 일본 북해도대학 농업경제학 박사
- 2002년 7월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농촌환경자원과장, 농산업경영과장 역임)

<관심분야> : 농업경영, 마케팅, 유통, 콘텐츠경영